



부산기술창업투자원
BUSAN STARTUP INVESTMENT AGENCY

보도자료

배 포 일 : 2026년 10월 16일

총 1쪽 (사진 별첨)

즉시 보도바랍니다.

담 당 : 박용수 글로벌투자실장

직 통 : (051) 715-1765

팩 스 : (051) 715-0289

이메일 : yj7205@bsia.or.kr

홈페이지 : www.bsia.or.k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2층(우동, 웹스빌딩)

FLY ASIA 2026, 2만 1천여 명 몰리고 상금 5억 4천만 원... 역대 최대 규모로 폐막

곧바로 내년 준비 본격 착수, FLY ASIA 심벌마크 디자인 공모전 개최

- 40개국 참가, 투자상담 1,383건, 전시기업 388개사로 전년 대비 91% 증가
- 밋업매칭 어플 · 디지털 전시로 '만남의 질' 높아... 투자상담 1,383건

Blue Ocean Connect를 주제로 40개국의 창업가와 투자자가 부산에 모인 아시아 창업엑스포 ‘FLY ASIA 2026’이 이틀간 2만 1,516명의 발길을 끌어모으며 막을 내렸다.

부산시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원장 김수진)은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부산 벡스코 1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가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 파트너 간 연결을 강화하며 행사 이후에도 협력이 계속 이어지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 바다를 품은 FLY ASIA... 세계 해양 전문가들이 부산으로

- 올해 FLY ASIA는 해양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담아 '해양'을 핵심 테마로 진행됐다. 개막식 기조연설은 글로벌 블루테크 투자 전문가 마크 황(Mark Hwang)이 맡았다. 그는 해양 혁신 플랫폼 SeaAhead의 공동창업자이자 GE의 글로벌 기업벤처캐피탈(CVC) 설립을 이끈 투자 전문가로, TEDx와 지속가능 해양 서밋, 글로벌 블루테크 서밋 등 세계적인 해양 혁신 무대에 올라온 인물이다.
-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함께 선보인 '해양특별관'은 행사장 입구 바로 앞에 자리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해양 관련 대기업과 스타트업 전시를 비롯해 체험존, 비즈니스 상담, 실증 지원까지 한곳에서 이뤄졌다. 특히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해양 대기업이 직접 기술 수요를 발표하는 '해양

오픈이노베이션(OI) 리버스피칭'을 통해 대기업의 수요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연결했다.

- 콘퍼런스 해양 세션에는 프랑스와 싱가포르 등 각국의 해양 투자·산업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섰다. 프랑스 1위 해운기업 CMA CGM 그룹의 혁신 플랫폼 ZEBOX의 티보 앙베르(Thibaut Humbert) 아시아태평양 총괄, 싱가포르 해양 전문 투자사 모션벤처스(Motion Ventures)의 에이드리언 호(Adrian Ho) 투자이사, 하성엽 마리나체인 대표, 정우송 워터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가 글로벌 해양 투자 흐름과 해양 스타트업의 성장 전략을 공유했다.
- 프랑스 ZEBOX와 싱가포르 모션벤처스는 행사장에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국내 해양 스타트업과 만났다. 유럽과 동남아의 해양 전문 투자사가 부산 현장을 찾으면서, 국내 해양 스타트업이 글로벌 투자자와 연결되는 접점이 넓어졌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해양 스타트업들은 이번 만남을 통해 유럽과 동남아 시장으로 나아갈 교두보를 마련했다.

□ "명함 돌릴 필요 없었다" 어플로 잡은 1,383건의 만남

- 이번 행사장에서는 명함 대신 스마트폰을 든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밋업 매칭 앱으로 만나고 싶은 투자자나 기업을 찾아 바로 미팅을 잡을 수 있어, 필요한 상대를 효율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그 결과 1:1 투자 밋업은 1,383건(10.12. 기준)에 달했으며, 전년도 대비 약 100건을 초과했다.
- 229개사가 참여한 디지털 전시도 호평을 받았다. 사방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전시존에는 참가 기업 소개와 행사 정보가 담겨, 관람객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이끌었다. 관람객은 관심 있는 기업의 정보를 한자리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참가 기업은 부스 없이도 더 많은 사람에게 회사를 알릴 수 있었다. 전시 참여 기업은 388개사(바운스 제외)로 지난해(170개사)의 두 배를 넘어섰다.

□ 1등은 세계 무대로! 스타트업 월드컵과 손잡은 글로벌 스케일업 챔피언스 어워즈

- 글로벌 스케일업 챔피언스 어워즈는 세계 최대 규모 스타트업 경진대회 중 하나인 '스타트업 월드컵(Startup World Cup)'과 연계해 판을 키웠다. 스타트업 월드컵 앰버서더(Silvie ES PARK)가 방문해 대상 수상기업인 씨아이티에 지역예선(부산) 우승 트로피를 직접 수여했다. 대상 기업에는 상금 1,500만원과 11월 4일부터 열리는 스타트업 월드컵 세미파이널 진출권이 주어졌는데, 부산 무대에서 시작한 기업에게 곧바로 글로벌 투자자 앞에 서는 길이 열린 셈이다.
- 어워즈 전체로는 6개 트랙에서 40개사(팀)가 총 5억 4,640만 원의 상금을 받

았다. 이 중 B스타트업 챌린지는 3개사에 3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이 가장 많았다.

□ "첫해부터 함께 걸어왔다" FLY ASIA 올해의 동문상

- FLY ASIA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의 성과를 조명하는 ‘FLY ASIA 올해의 동문상’이 올해 처음 도입됐다. 동문상은 FLY ASIA 참가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부산과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동문기업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첫 수상의 영예는 2022년 FLY ASIA 첫해부터 꾸준히 함께 해 온 씨아이티(CIT)와 크리스틴컴퍼니(KRISTIN COMPANY) 2개사에 돌아갔다.
- 씨아이티는 2024년 B-스타트업 챌린지 대상 수상에 이어 올해에는 ‘글로벌 스케일업 챔피언스 어워즈’ 대상과 동문상을 받아 2관왕에 올랐으며, 비에이파트너스 등과 117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MOU를 체결했다. FLY ASIA를 발판으로 성장해 온 씨아이티는 독자 기술인 원자 스퍼터링 에피택시(ASE) 기반의 AI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ASEDep’으로 CES 혁신상을 받고 TechCrunch Startup Battlefield 200에 선정되는 등 글로벌 무대로 보폭을 넓혔다. 앞으로 FLY ASIA에서 맺은 협력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패키징과 6G 분야의 핵심 소재·공정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 크리스틴컴퍼니는 FLY ASIA 2023에서 부산 대표 스타트업으로 부스를 운영하고 스페셜 세션 패널로 참여해 성장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매년 FLY ASIA에서 투자자·글로벌 파트너와 만나며 쌓은 네트워크를 디딤돌 삼아 시리즈A까지 누적 160억 원의 투자를 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과기부·교육부 등 주요 부처 장관상을 잇달아 수상하며 독보적인 혁신성을 인정받아 왔다. FLY ASIA에서 시작된 해외 시장의 문 두드리기는 최근 해외 투자 유치로 연결되며 ‘신발 도시 부산’의 저력을 세계 시장에서 증명해 나가고 있다.

□ 스타트업부터 투자자, 부산 맛집까지… 생태계가 한자리에

- 참가자들은 창업가,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공공기관, 해외 파트너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한곳에 모였다는 점을 이번 행사의 매력으로 꼽았다. 18개국 48개 기업·기관이 참여한 글로벌 파빌리온과 해양·피지컬AI 등 5개 콘퍼런스 세션이 이를 뒷받침했다.
- LP-VC 포럼은 벤처펀드에 자금을 대는 출자자(LP)와 이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VC)이 직접 만나는 자리로, 투자 전문가 102명이 참석했다. 스타트업 투자의 ‘돈줄’인 출자자와 운용사가 부산에서 머리를 맞대면서 당초 예상을 웃도는 46건의 LP-VC 밋업이 성사됐고, 스타트업 투자를 넘어 지역 벤처투

자 생태계로 자금이 흘러드는 통로를 넓혔다.

- 행사장의 분위기를 바꾼 것은 블루 테이블 존에 자리한 부산의 로컬 맛집이었다. 히페로스터리, 노이노이, 가솔린하우스, 타르트홀리건, 모루과자점 등 부산 미식 로컬기업 5곳이 참여해 바쁜 행사장 속 부산다운 즐거움을 더했다는 평이 많았다.

□ 국내부터 해외까지… 기관 간 협력도 풍성

- 행사장 내 MOU존에서는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약도 잇따랐다.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손잡고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배경학생 등 창업 기회가 적었던 이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부산에 정착하는 외국인 창업인재를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며 부산에 뿌리내리는 글로벌 창업인재를 함께 키워갈 계획이다.
- 해외에서는 대만 TEH(Taipei Entrepreneurs Hub), 몽골 국립정보기술파크(NITP), 우즈베키스탄 IT파크 및 엔터프라이즈 우즈베키스탄과 협약을 맺고, 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진출과 소프트랜딩 지원, 주요 창업행사 교차 참여, 공동 프로그램 발굴, 창업 커뮤니티 교류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 스타트업이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FLY ASIA는 국내외 창업생태계를 잇는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 벌써 시작된 내년 준비… 심벌마크 디자인 공모전 개최

-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벌써 내년 행사 준비에 나섰다. FLY ASIA를 아시아 대표 창업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FLY ASIA 심벌마크 디자인 공모’를 운영하고, 선정된 심벌마크를 공식 상징으로 삼아 행사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 공모전은 11월 6일까지 진행되며, FLY ASI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인 2건 이내로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부산기술창업투자원 김수진 원장은 “FLY ASIA는 이제 부산 스타트업이 세계로 나가는 출발점이자, 세계가 부산을 찾는 이유가 되고 있다”며 “올해 맺은 연결이 앞으로 5년, 10년 뒤 부산을 전세계 창업 허브로 이끄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FLY ASIA를 아시아 대표 창업 플랫폼으로 꾸준히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사업(행사) 개요

□ FLY ASIA 2026 개요

- 행사명: 아시아 창업 엑스포 「FLY ASIA 2026」
- 기간·장소: 2026. 10. 7.(수) ~ 8.(목), 벅스코 제1전시장 1홀·2A홀 *전야제 10.6.(화)
- 슬로건: Connect Asia, Fly to the World ※ '26년도 주제: Blue Ocean Connect
- 홈페이지: <https://www.fly-asia.org/main/>
- 참여대상: 국내·외 창업생태계 관계자 및 일반 관객 2만 명 이상
-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 (재)부산기술창업투자원
- 주요내용: 해양특별관, 콘퍼런스, 글로벌, LP-VC포럼, 어워즈, 1:1 밋업, 전시 등

□ 주요 프로그램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세리머니	[아시아 창업 도시의 허브로의 도약 비전 제시] ① 개막식 ② 어워즈 시상식 및 폐막식	
해양	[민선 9기 주요공약 - 해양 AI 아시아 창업엑스포 개최] ① 해양특별관 신설 국립해양대 ② 해양 특별 트랙 - 해양 분야 창업특강,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등	
글로벌	[아시아 창업 국가 및 도시간 네트워킹을 통한 국가별 트렌드 공유] ① 글로벌 파빌리온 ② FLY ASIA 파트너스	
콘퍼런스	[아시아 창업 생태계 주도권 확보와 AI 기술분야 선도 도시 위상 강화] ① 키노트 스피치 - 마크 황(글로벌 블루테크 전문가) ② 해양, 피지컬AI, 글로벌, 투자자, 금융혁신 세션 구성	
투자	[국내외 창업 기업 대상 투자자 밋업 및 기업 IR을 통한 투자지원] ① 1:1 밋업 ② LPVC포럼 ③ 어워즈 ④ 대학생·유학생 프로그램	
전시	[청년의 참여와 시민 소통을 위한 창업 전시] ① 주제별 부스구성: 전략산업, 투자사, 글로벌 파빌리온 등 ② 스타트업 디지털 전시 신규 도입	
협업	[창업 생태계 관계자(유관기관, 대학, 기업 등) 협업프로그램] ① 창업 유관기관 협업 프로그램 ② 해양분야 협업	
네트워킹	[창업생태계 관계자 파트너십 구축 및 네트워킹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① 전야제(10.6.) ② 네트워킹 파티(10.7.)	

붙임 2 관련 사진

*관련사진은 사진파일로 추가 첨부



그림 1 FLY ASIA 2026의 개막을 선포하는 김수진 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



그림 2 FLY ASIA 2026 폐막식에서 해외 어워즈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